2012 통일영화제

○ 일시 : 2012년 5월 10일(목) 10:30-18:00

○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최 :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toward COMMUNICATION HEALING INTEGRATION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NRF 한국연구재단 KU 건국대학교

【 행 사 일 정 】

10:20 등록
10:30 개막식

1부 : 통일영화 상영회
10:30-12:20 <굿바이 레닌> 상영
12:20-12:30 휴식
12:30-14:20 <간 큰 가족> 상영
14:20-14:30 휴식

2부 : 강연
14:30-15:20 영화를 통해 본 분단의 현실
/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15:30-15:30 휴식

3부 : 제1회 통일영상 및 영화비평 공모 시상식
15:30 - 16:00 시상식
16:00 - 17:00 영화비평 수상작 발표회
17:00 - 18:00 통일영상 수상작 상영회

【 목 차 】

인사말	1
강연 : 영화를 통해 본 분단의 현실	3
통일영화제 영화비평부문	15
비평부문 심사평	16
비평부문 수상작 1 「영화 <간 큰 가족>을 통해 본 분단의 상처와 그 치유로서의 통일」	17
비평부문 수상작 2 「영화 <굿바이 레닌>비평 : 분단의 트라우마와 사람의 통일」	22
비평부문 수상작 3 「영화 <굿바이 레닌>을 통한 통일의 치유의 서사를 찾아서 : 지젝의 이데올로기론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	27
통일영화제 영상부문	32
영상부문 심사평	33
영상부문 최우수작 <낯선 우리>	34
영상부문 우수작 1 <새날교육봉사단>	36
영사부문 우수작 2 <DREAM>	38

‘지성’, ‘통일’, 영상으로 소통하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시민과 소통하면서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통일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문주간을 맞이하여 ‘2011 통일영화제’를 실시하여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년 통일영화제는 한반도 분단문제를 직시하고 통일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고자 ‘지성, 통일, 영상으로 소통하다’라는 제목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영화제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실시한 ‘제1회 통일영상 및 영화비평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함께 마련하였다는 점입니다. 공모전은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통일영상’과 ‘영화비평’의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통일영상 부문에는 5편의 작품이, 영화비평 부문에는 18편의 글이 응모되었습니다. 모든 작품과 글들이 많은 고민들을 담아낸 것들이어서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기획의도와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살린 작품으로 각 부문에서 3편씩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작품과 글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듯이 분단의 상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단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치유를 모색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더욱더 풍요롭고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준비한 두 편의 영화와 강연 그리고 수상작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모색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부디 2012 통일 영화제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김성민

강연

영화를 통해 본 분단의 현실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강연

영화를 통해 본 분단의 현실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1. 대중문화와 심리적 대응의식

대중문화는 당대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한다. 우리의 대중문화에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창작 소재가 되어 왔다. <똘이장군>,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간첩리철진> 그리고 최근 개봉을 앞두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 등등이 있다. 영화 이외에도 코미디물이나 드라마 등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대중문화는 당대사회 대중의 보편적 가치 인식을 은유적이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그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심리적 대응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대중문화속에 투영된 대립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인식의 변화 양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제작된 헐리우드의 영화는 CIA와 KGB의 대결로 그려졌다. 영화 <록키Ⅵ>에서 미국 챔피언인 록키는 소련이 정책적으로 키운 복서 '드라고'와 일전을 벌인다. 드라고는 첨단의 인체공학을 응용한 초현대식 훈련장비를 사용하여 강력한 파워와 테크닉을 갖춘 강철 같은 사나이다. 드라고와 대전한 아폴로가 드라고와의 싸움으로 숨지자 은퇴했던 록키가 아폴로의 명예와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다.

헐리우드의 다른 영화들도 비슷하다. 세계를 파괴하려는 악의 범죄를 이겨냄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007 영화' 시리즈는 영국과 미국에서 촬영되었다. 촬영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미사일이 향하는 방향이다. 미사일이 런던을 겨냥하고 있으면 영국이다 뉴욕이나 워싱턴을 향하고 있으면 미국에서 만든 것이다. 미사일은 한적한 사막 한 가운데나 남미의 밀림을 향하고 있지 않다. 뉴욕이나 워싱톤, 혹은 런던은 세계 경제의 중심임을 드러낸다. <쉬리>에서 폭탄은 잠실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었고, 일본 재난 영화의 중심은 도쿄이다. '중심이 파괴된다면'이라는 가정이 긴장감이 생긴다.

거대한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는 소련 붕괴 이후 사실상 없어졌다. 소련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미국과 대립각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미국과 싸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냉전체제 구도 해체 이후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는 국제적 질서를 파괴하려는 집단(트루라이즈)이거나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앙(토네이도, 투모로우), 지구 밖의 우주(에어리언 시리즈)로 설정되어 있다. 권력 내부의 모순이나 거대한 자연 재앙으로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심리적인 대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화영화 <똘이장군>

파주 오두산 전망대에서 있었던
전쟁체험 미술전시회

2. 분단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

1960년대 최고 흥행감독인 김기덕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신영균, 최무룡 등이 출연한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김기덕 감독의 <남과 북>(1965년 제작)은 이념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 속에 엇갈린 세 남녀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전쟁의 비극을 정면으로 그린 영화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때, 최전방 중대 앞으로 인민군 소좌 장일구가 귀순해 온다. 장일구는 전쟁으로 헤어진 애인 고은아를 만나기 위해 귀순하였다고 하면서, 약혼한 애인 사진을 보여준다. 운명의 장난처럼 장일구가 내민 사진 속 여인은 얼마전 장일구가 귀순한 부대의 중대장으로 있는 이 대위의 부인이었다. 고은아와 결혼 하기 전 이대위는 만약 북한에서 애인이 찾아온다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고민하던 이 대위는 마침내 부인 은아와 장일구에게 사실을 말하고 은아를 부대로 부른다. 결혼을 약속했다 헤어진 장일구와 남쪽에서 결혼한 이 대위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은아를 보면서 이 대위와 장일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아를 양보한다. 마침내 이 대위는 교전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자원하고, 적진으로 뛰어들다 사망한다. 이 대위의 죽음을 괴로워하던 장일구 마저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난다.

영화 <남과 북>은 탄탄한 스토리로 전쟁의 비극을 그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4회 대종상 영화제 각본상과 제3회 청룡영화상에서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남과>은 신혼가정의 해체를 통해 전쟁의 비극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전쟁으로 가정이 깨져야 했고, 사랑하는 연인을 버리고 적군의 아내가 된 애인을 찾아 국경선을 넘는 장일구. 흩어진 가족,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소박한 꿈은 전쟁으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비극으로 남았고, 마침내 벼랑에서 몸을 던지는 것으로 끝난다.

3. 그리고 냉전의 시작

전쟁은 민족사의 비극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남북은 치열한 이념 갈등 속에서 전쟁을 지나면서 구체적인 적으로서 총부리를 마주하게 되었다. 북한과 싸워서 이겨야 했다. 어떤 논리나 이

유를 벗어나서도 함께할 수 없는 뿔 달린 짐승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대립과 경쟁 구도 속에서 제작되었던 텔레비전 드라마 '전우', '꼬마장군 똘이' 등에서는 대립적 남북관계를 기본 구성으로 적으로 규정한 상대적과의 싸움을 전제로 한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바라보는 우리에 대한 시각도 비슷했다.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 참사가 '남쪽사람들은 다 뿔난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의 사상으로 매몰될 때는 집단의 힘을 빌어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나치 대학살 731부대의 생체실험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도 집단의 힘을 빌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당당하게 했던 잔혹사의 한 단면이다.

용산전쟁기념관에 있는 <형제상>, 형제가 국군과 인민군이 되어 만났던 실화를 형상한 조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소재이기도 한 민족의 비극이다.

북한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면서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대중문화도 내용이 변했다. 분단초기에는 '혈연이나 가족구성원의 이별'이 중심 내용이었다. 한 가족이었다고 흩어졌거나 부부였다가 헤어지게 된 기구한 운명을 그렸다. 대중문화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현실에서 보여지는 비극이 너무 컸다. 당시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기에 인기가 있었다.

이념적 대응이 강했던 1970년대 주요 소재가 된 것은 국군과 인민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대중들에게 승리와 우월감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쟁물이다. 멋진 국인들이 인민군을 무찌르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다. 내노라 하는 영화감독들이 국가 정책에 의해 전쟁영화를 만들었고, 드라마를 만들었다. 아이들의 골목놀이에서도 국군과 인민군으로 갈렸고, 이기는 쪽은 언제나 국군이었다.

남북이 대화하기 이전 우리 문화 속에 북한은 상대하지 못할 '원쑤'였다. 상대가 원수였기에 어떻게 하든 무찔러 이겨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얼마나 나쁜지를 밝히고 인식시키는 내용의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졌다. 라시찬이라는 멋있는 군인아저씨가 나와서 괴뢰군을 멋지게 물리치고 구해오는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람보보다 멋있었고, 터미네이터보다 든든했다.

적과 아군의 도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이다.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어린 아이, 부녀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지에 따라서 도덕적 우월이 결정된다. 좋은 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가하는 폭력은 그 자체로서 비극인 동시에 비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인 극단은 짐승으로 묘사된다. 남북은 그렇게 서로를 짐승으로 그렸다.

4. 남북관계의 적대적 대타성

영화 <실미도>에서 보았듯이 남북은 대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을 즐겼다. 북한이 하면 우리도 하고, 우리가 하면 북한도 하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대성동 선전마을의 기발은 이러한 경쟁의 상징이다.

영화 <고지전>

강대국 속에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잉태된 남북은 쓰라린 전쟁을 치루어야 했다.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되었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문제를 뒤로한 체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렸다. 그렇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분노의 감정을 풀어내는 방식을 익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어려웠고, 배타적 경쟁의식이 보편화 되었다. 경제현장, 학교, 사회에서 축적된 적대적 감정은 주로 비문화적 방법(음주, 향락, 스포츠, 폭음 등)으로 풀어냈다. 문화적이지 못한 감정의 배출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경제 발전의 이면 속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이었다.해외동포를 상대로 한 공영방송인 한민족방송도 대북방송으로 출발했다.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면서 사회적인 모든 문제는 대응이데올로기 속으로 숨어버렸다. 국민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반공을 통한 통일의 길로 나서야 했다. 반공 이외의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용서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요 일탈이었다.

통일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은 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곧 반정부 행위였고, 반민족 행위였다. 군대에서는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다.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은 것은 전투력을 약화시켜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도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말하면 하나로 모아야 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다양성은 그렇게 무시되었다.

이런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우리는 알게 자연스럽게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데 익숙해 졌다. 대립상황에서 중립이나 중도는 설자리를 잃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무엇인가 둘로 나누기를 좋아한다.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은 생각하는데 대단히 편리하다. 가치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따질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것도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런 저런 이유로 남북관계 한동안 우리 문화의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되어 왔다.

5.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분단과 함께 북한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북한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가 내려진 것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야 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남북은 그렇게 서로 마주하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였다. 한반도를 떠나 외국에서도 서로의 만남은 곧 국가보안법의 대상이었기에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으르렁 거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남북관계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민적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시켰다.

하지만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하였다는 자신감과 세계인 속에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한반도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도 수교를 하였고, 소련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남북단일팀도 만들어졌습니다. 급기야 만화책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남북 정상의 만남도 실현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대립의 차원을 넘어 협력 관계로 그려지기 시작했고, 창작기간을 거쳐 1990년 중반에 발표된 대중문화에서 남북은 형제적 관계로 설정되었다. 남북관계를 다룬 대중문화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1], '남벌',[2] '쉬리', '간첩 리철진', '2000년 4월 봄 봄 봄'[3] 등이 있었다.

강제규 감독의 영화 '쉬리'는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전세계에서 자국영화로 '타이타닉'보다 많은 관객을 기록한 유일의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 최고의 흥행작이다. 북한의 특급 저격수와 남한의 특수부대 요원과의 사랑과 이념문제를 축으로 한 작품이다. 소설로 다시 출판되었으며, 비디오로도 높은 판매를 기록하였다. 영화 '간첩 리철진'은 남한의 슈퍼돼지를 얻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 엉뚱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겪게 되는 사건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로 상영된 이후 비디오로 판매되어 많은 인기를 모았다.

'쉬리'나 '간철리철진'은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아와 난민, 핵·미사일이라는 어휘가 먼저 떠오르는 북한을 보면서 이중적인 인식, 이중적인 단면을 생각하게 되었다. 적과 동지의 경계의식을 보여준다. '간철리철진'에서 리철진은 지하철을 타고가다가 '간첩신고 포상금 1억'이라고 쓰여진 것을 보면서 1억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물어 본다. '서울 주변의 작은 아파트 정도'

---

1)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먼저 소설로 출판되어 백만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한 베스트 셀러이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였던 이휘소 박사의 실종 사건을 기본으로 축으로 남북한의 대립 속에서도 시베리아 개발권을 놓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남북한이 손을 잡고 핵미사일로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내용이다. 이후 영화로 제작되어 정보석, 황신혜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었다.

2) 이현세의 만화 '남벌'은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다. 통일 남북을 가상으로 통일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서 남북한의 정예부대원들이 연합으로 재일동포들을 구출해 내는 것을 비롯하여 전쟁 속에 신화적 활약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3) '2000년 4월 봄 봄 봄'은 1999년 4월 KBS '일요베스트'에서 상영된 텔레비전 단막 드라마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진전되면서 남북 합작 영화가 제작되었고 이를 위해 북한의 인기 배우 백미향이 도착하면서 보디가드를 인 강현우와의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주위에도 안타까워 하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라는 답변 속에서 주변에서 밀려난 작은 아파트가 되어 버린 이념의 의미가 투사된다.

이들 작품들은 각각 소설, 만화, 영화, TV드라마로서 대중성이 강한 작품에서 남북관계는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적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돌려졌다. 일본과 한번 겨루어 볼만하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합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세의 <남벌>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남북 사이에는 무엇인가 오고가는 은밀한 만남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일본과 싸워도 이길 것 같았고, 남북은 당연히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남벌'은 잠재된 대중들의 보상심리를 반영한 작품이었다. 국제적 지위 상승에 따른 국가정체성 확인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적 자신감과 여망을 표현하였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대응적으로서 일본이 경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국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리적 대응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왼쪽 영화 <간첩 리철진>, 오른쪽 영화 <동해물과 백두산이>

6.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어색한 만남

1990년을 지나면서 남북은 어색한 만남을 시작한다. 이 시기 남북의 분단과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그린 문학이 등장한다. 분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가족 환경을 바탕으로 분단의 상처와 모순을 짚어가는 소설이 한 때 소설의 주류를 이루었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김원일 <노을>, 이문열 <변경> 등은 연좌제 문제를 다룬 소설로서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당한 고통에 대한 부채의식을 살필 수 있다.

1990년대 금기적인 내용이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문학 작품 속에서 개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중국에서 이복동생과의 만남), 홍상화의 <어머니 마음>(중국에서 아버지와의 만남), 최윤의 <아버지 감시>(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살고 있는 아버지를 파리로 초청해서 지내고 있는 문제), 이원규 <강물은 바람을 안고 운다>(러시아 여행중에 북한 주민과 접촉), 이호철의 <보고드리옵니다>(폴란드 여행중에 북한 주민과 접촉), 이순원의 <혜산가는 길>(압록강 접경 마을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여정)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은 개인적 경로를 통해 북한 사람과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1990년대 남북한 상봉을 다룬 소설들은 적대국간의 불법적인 민간 교류를 문제사는 창작적

모험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설에는 다른 소설에 비해 남북한과 제3국을 함께 체험한 주인공이 활약하는 공간적 입체성과 그런 주인공을 서로 만나게 하는 방법론상의 기교가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북한 주민과의 만남은 우회적이고 긴장 속에 이루어졌다.

> "대합실로 들어갔는데 바닥에 옹기중이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나를 둘러쌌어요. 마흔 명쯤은 될 거예요. 옷차림을 보고 우리 동포들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야? 하고 말이예요. 나는 얼결에 조선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하고는 냅다 달려나왔어요. 소변이고 뭐고 싹 잊어버렸다구요."
>
> - 이원규, <강물은 바람을 안고 운다>

깜짝 놀라거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코 앞까지 왔다가도 "강 건너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만 돌아가거라"(이순원, <혜산가는 길>)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린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탈북자의 삶을 그린 작품이 등장한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또 다른 분단으로서 디아스포라의 영역으로서 그리면서 정착의 갈등과 차별을 통한 우리 사회의 성찰을 촉구하기 시작한다. 탈북자 정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 차원을 넘어 일상화된 문제가 되었다. 1990년 이후 탈북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최윤, <아버지 감시>(소설집 『저기 소리없이 한잎 꽃잎이 지고』, 문학과지성사, 1992), 김지수, <무거운 생>(『창작과비평』, 1996년 가을), 박덕규 <노루사냥>(『한국소설』, 1996년 가을),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웅진, 1999), 박덕규 <동화읽는 여자>, 박덕규 <세 사람>(『동서문학』, 1998년 봄),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청동거울, 2004), 정을병 <남과 북>(『꽃과 그늘』, 개미, 2001) 김정현, 장편<길 없는 사람들 1,2,3>(문이당, 2003), 김남일 <중국 베트남어 회화>(실천문학, 2004년 여름호)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문학수첩』, 2005년 가을), 문순태 <울타리>(『울타리』, 이룸, 2006), 정철훈, <인간의 악보>(민음사, 2006),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문학수첩』, 2007), 정도상 <찔레꽃>(창작과비평사, 2008), 이대환 <큰돈과 콘돔>(실천문학사, 2008), 리지명 <삶은 어디에>(아이엘엔피, 2008) 등이 있다.

영화 <간 큰 가족>

7. 오늘의 남북관계, 그리고 대중문화 : 영화 <나의 결혼원정기>, <두만강>, <겨울나비>

2000년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다룬 영화들이 쏟아진다.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아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영화를 통서나마 섣부른 만남이 이루어진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만남의 광장', '태풍', '그녀를 모르면 간첩', '나의 결혼원정기', '크로싱', '간큰가족', '휘파람 공주', '천군', '웰컴투 동막골', '유령', '국경의 남쪽', '남남북녀', '태극기 휘날리며', '공동경비구역 JSA', '송환'(다큐), '나의 결혼원정기', '꿈은 이루어 진다'[4], '포화 속으로', '의형제', '무산일기', '코리아' 등이 만들어졌다.

2011년 만해도 <무산일기>, <두만강>, <량강도 아이들>, <굿바이평양>, <적과의 동침>, <고지전>, <풍산개>, <겨울나비> 등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때로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진하게 그려냈다. 또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난한 정착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의 말로는 다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을 덤덤히 그려내기도 한다.

왼쪽 영화 <의형제>, 오른쪽 영화 <풍산개>

1) 탈북자로 다가온 북한 : <나의 결혼원정기>, <무산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북한 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문구가 거리에 걸려 있었던 것을... 북한 처녀만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변처녀, 베트남처녀, 필리핀처녀, 몽골처녀 등등. 각국의 처녀들과 결혼하라는 플랜카드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나라가 아닙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골라서 결혼할 수 있다니.... 그런데 "북한 처녀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의 결혼원정기>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났던 농촌 총각 만택이 통역관이자 커플 매니저였던 라라와의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시골 농촌 총각이 결혼을 위해 멀리 중앙아시아까지 원정가서 만나 사랑하게 된 아가씨가 하필 탈북자라는 설정이 이채롭다.

서른 여덟이 되도록 결혼은 커녕 여자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순진하기만 한 노총각 홍만택(정재영 분). 몽정한 팬티를 엄마 몰래 빨다가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이 있겠느냐"는 홀어머니의

4) 영화 <꿈은 이루어진다>는 2010 월드컵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5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남북 군인들이 월드컵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다. 흥행에는 크게 실패하였다.

푸념을 들을 때마다 죄인이 된 심정이다.

만택과 자칭 선수라고 자랑하지만 만택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 동네 친구 노총각 희철. 만택과 희철 두 사람은 마을로 시집온 우즈베키스탄 색시를 보고는 용기를 낸다. 아껴두었던 결혼자금을 털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맞선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 결혼에 대한 마지막 희망으로 시작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맞선 여행에서 만택의 친구 희철은 혀 짧은 영어를 구사하며 나름 선전하는데, 답답할 정도로 순진한 만택은 번번이 퇴짜만 맞는다.

답답한 만택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통역이자 커플 매니저인 라라(수애 분). 라라에게는 이번 맞선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 라라는 탈북자였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했고,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결혼을 성사시키고 성사금을 받아야 했다. 라라는 번번히 실패하는 만철을 위해 개인교습에 나선다. 데이트 방법도 알려주고, 우즈벡어도 가르쳐 준다. 미팅을 하고나서 꼭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다 자쁘뜨러'라고 적어준다. 만택은 쪽지에 적힌 '다 자쁘뜨러(내일 또 만나요)'를 되네이다 문득 라라를 생각하면서 쑥스러워 한다. 라라의 지원과 조언으로 만택은 마침내 데이트까지 성공하지만 만택의 마음은 이미 라라를 향하고 있었다.

세상 천지없이 순진하기만 한 노총각 만택을 보는 라라의 시선도 그리 싫지는 않다. 출국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시내구경을 하던 두 사람은 우즈베키스탄 경찰과 맞닥뜨린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통역하던 라라를 의심하고 가방을 뒤진다. 라라의 가방에서는 북한 여권이 나오고 라라는 꼼짝없이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 만택이 나선다. 만택이 경찰과 맞서면서 라라를 피하게 한다.

만택이 우즈벡을 떠나던 날, 공항으로 몰래 만택을 배웅나온 라라. 기둥 뒤에 숨어 있던 라라를 본 만택은 절규하듯 소리친다. '다 자쁘뜨러', '다 자쁘뜨러', '다 자쁘뜨러' 그렇게 허무하게 결혼원정기를 마치고 만택은 다시 시골 노총각으로 돌아가 흙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데, 만택을 찾는 낯선 사람. 텔레비전 뉴스 시간 화면 속에는 '한국행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의 모습이 모이고, 라라의 얼굴이 비춰지면서 라라를 만나러 가는 만택의 행복한 모습이 클로즈 업 된다.

우즈베키스탄 경찰에게 붙들리게 된 라라가 만택에게 던졌던 말이 아직도 쟁쟁하다. '어서 달려요, 어서', 경찰을 피해 달리라는 그 말이 왜 그리 절박하게 들렸는 지 모르겠다. 왜 그 순간에 하필 그 말이 나왔을까? 북한을 떠나 중앙아시아까지 오면서 라라는 몇 번이고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몇 번이나 내 뱉었을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리는 것 말고 또 무엇이 있었을까?

똑뿌러지고 당찬 아가씨 라라가 멍청하게까지 보이는 순진남 노총각 만택에게 호감을 느낀 것은 자신을 위해 달려주었기 때문이었다.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달리라'는 말을 들은 만택은 라라를 위해 달리기 시작한다.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한낮부터 시작된 달리기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끝난다.

땀으로 범벅이된 만택을 보면서 라라는 안타깝게 묻는다. '달리란다고 그렇게 달리느냐'고, '왜 달리라고 했는 지 이유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묻는다. 만택은 대답한다. "누구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라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고,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것뿐이었다. 라라가 본 것은 희망은 아니었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한국이라면 라라의 한국행은 무척이나 행복했을 것이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을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상사가 어디 그런 일들뿐이겠는가. 애써 물으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공감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2)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 <두만강>

<두만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 지역을 배경으로 중국 조선족 마을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넘어오면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선족 출신인 장율 감독의 담담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이다.

연변조선족 자치주와 북한 함경북도를 사이에 둔 두만강변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열 두 살 창호는 북한 소년 정진가 친구가 된다. 할아버지와 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창호는 식량을 구하려고 두만강을 넘나드는 정진은 또래다. 먹을 것을 구하려 강을 건넌 정진은 먹을 것을 부탁하고, 창호는 함께 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먹을 것을 구해준다. 축구시합에 참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래였지만 어느새 둘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가 되었다. 축구를 잘하는 정진은 창호에게 얼마 후에 있을 아랫마을 아이들과 축구시합에 출전하기로 약속한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삶도 쉽지 않았지만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과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도와준다.

하지만 겨울 식량으로 준비했던 명태를 몽땅 도둑받고, 창호의 친누나 순희가 탈북자로부터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도 탈북자들을 번거롭게 여기면서 소년들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

누나가 탈북 청년에게 겁탈당한 사실을 알게 된 창호는 탈북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 누나의 복수를 위해 탈북자들을 집단폭행한다. 하지만 정진은 아랫마을 아이들과의 축구시합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정진의 우정에 진심을 느낀다. 축구시합 전 한 아이의 밀고로 정진은 체포되고, 창호는 지붕으로 올라가 뛰어내린다.

<두만강>은 축구룰 경계로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도 어른들의 세계에 의해 굴절되고, 어른들의 이념적인 잣대로 아이들의 우정마저도 짓밟히는 현실을 통해 인간 존에 대한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3) 한 겨울을 살아가야 하는 나비 이야기 : <겨울나비>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는 눈보라 치는 겨울날 먹을 것을 찾아 나선 나비와 같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의 현실을 그린 영화이다. 감독이 황해북도에서 살고 있을 당시에 목격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로 한 모자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영화다.

아버지도 잃고, 형도 없이 병든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는 11살 가장 진호. 진호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산에 가서 마른 나무를 해다 장마당에 팔아 끼니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진호의 친구이자 나무를 함께 하는 성일이 있다. 진호와 성일은 친구였지만 진호는 먹을 것이 없어 매일 아침 진호의 집에 와서 엄마의 밥을 얻어먹는 성일을 싫어한다. 결국 그 일로 진호와 성일은 싸우게 되고, 둘은 따로따로 나무를 하러간다. 혼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진호는 그만 산에서 사고를 당하고 길을 잃고 산 속을 헤매게 된다.

나무하러 갔던 진호가 돌아오지 않자 진호의 엄마는 진호를 찾아 나서지만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공안에다 신호를 하고, 감시원에게 물어보지만 진호의 엄마에게 돌아오는 것은 핀찬과 냉담 뿐이었다.

산 속에서 며칠 동안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길을 헤매다 다행히 산을 내려 온다. 집으로 돌아 온 진호를 보면서 진호의 엄마는 기뻐하지만 다친 진호는 꼼짝할 수 없었다. 다친 진호와 먹을 것이 바닥났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진호의 엄마는 물을 마시면서 목숨을 연명해 나간다. 차디찬 냉방에 병든 몸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진호의 엄마는 서서히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영화 <무산일기>

4) 탈북자 2만 명 시대의 불편한 진실 <무산일기>

2011년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무산일기>는 함경북도 무산을 떠나 남한 사회에서 무산계급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험난한 정착과정을 그린 박정범 감독의 영화다.

영화 <무산일기>는 대학시절부터 감독의 절친한 친구였던, 지금은 고인이 된 '전승철'을 위해 만든 <125 전승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산일기> 전작인 <125 전승철>에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 전승철은 감독이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고인이 된 친한 친구이름이다. 박정범 감독이 이창동 감독의 <시> 조연출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암과 싸우고 있던 친구가 쪽지를 남긴 것을 발견한다. 쪽지를 보낸 것은 몇 달 전이었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발견하였다. 친구의 병세를 확인하였을 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평소 친구를 위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감독은 부랴부랴 친구를 위해 <125 전승철>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몰핀에 의지하여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이틀 후 친구는 영원한 안식을 찾아 이 땅을 떠났고, 박정범 감독은 떠난 친구를 헌정하는 영화 <무산일기>를 완성한다.

<125 전승철>에서 친구 이름 앞에 붙은 '125'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세 숫자다. '125'는 원래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정착시설이 있는 안성지역의 코드였다. 하나원을 나오면서 호적을 취득하는데, 안성지역의 코드 '125'가 부여된 것이다. 그런데 '125'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었고, 족쇄처럼 따라다녔다. '125'라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비자가 거부당하기도 했던 적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무산일기>는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보내는 편견과 드

러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화다.

영화 <무산일기>

통일영화제 영화비평 부문

비평부문 심사평

비평부문 수상작 1
「영화 <간 큰 가족>을 통해 본 분단의 상처와 그 치유로서의 통일」
당선자 : 권경민
비평부문 수상작 2
「영화 <굿바이 레닌>비평 : 분단의 트라우마와 사람의 통일」
당선자 : 이장호
비평부문 수상작 3
「영화 <굿바이 레닌>을 통한 통일의 치유의 서사를 찾아서 : 지젝의 이데올로기론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
당선자 : 최수범

통일영화제 영화비평 부문 심사평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주최한 '제1회 통일영상 및 영화비평'은 '분단의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중 영화비평 대상 작품은 <굿바이 레닌>, <간 큰 가족>, <송환>있었으며, 이에 총 18편의 글이 응모되었습니다. 통일영화제 영화비평 부문 심사위원단은 주제적합성, 독창성, 논리성, 글의 구성과 표현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영화 <간 큰 가족>을 통해 본 분단의 상처와 그 치유로서의 통일」,「영화 <굿바이 레닌>비평 : 분단의 트라우마와 사람의 통일」,「영화 <굿바이 레닌>을 통한 통일의 치유의 서사를 찾아서 : 지젝의 이데올로기론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영화 <간 큰 가족>을 통해 본 분단의 상처와 그 치유로서의 통일」은 영화<간 큰 가족>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상처를 공감적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곧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은 분단의 상처 치유로서 통일의 역할을 영화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화 <굿바이 레닌>비평 : 분단의 트라우마와 사람의 통일」은 영화<굿바이 레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들이 가진 분단의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독일과 같이 사람의 통일이 아닌 체제만의 통합이 이루어졌을 경우 통일로 인한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이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분단의 문제를 미래 통일 한(조선)반도에 비추어 통일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영화 <굿바이 레닌>을 통한 통일의 치유의 서사를 찾아서 : 지젝의 이데올로기론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은 영화 <굿바이 레닌>을 지젝과 데리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그로 부터 얻은 시사점을 남북 분단 현실에 적용하여 분단지속의 원인과 분단극복의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념을 좀 더 정합적으로 사용하면서, 글의 전체 구성에 있어 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서술하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세 글은 통일과 분단에 관한 일반론을 넘어 나름의 독창적인 사고가 녹아져 있으며, 논리적인 전개로 이를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영화제 영화비평 부문 심사위원단

영화비평 부문 수상작 1

영화 <간 큰 가족>을 통해 본 분단의 상처와 그 치유로서의 통일

권경민(고려대학교 중국어학과)

1.

김 노인은 오매불망 북한에 두고 온 처와 딸을 그리워하며 죽기 전 그네들을 만날 날만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노인이다. 최근 들어 더욱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의사로부터 삼 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침상에 누워서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는 말만을 마치 두고 온 가족들에게 하듯이 되뇌곤 한다. 노인은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재 김 노인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다. 큰아들 명석은 잘못 선 보증으로 빚이 산더미가 된 상태에서 우연히 아버지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 노인이 생전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은 노인 사망 후 유산으로 남게 된다. 만약 노인이 살아생전 통일이 된다면 이 땅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든 재산을 통일부에 기증 하겠다' 는 내용이었다. 명석은 당장 그 땅을 보러 갔다가 현재 시가가 자그마치 50억은 된다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엉뚱하고도 기막힌 발상을 하게 된다. 바로 '통일이 된 것처럼 연기해서 유산을 받자' 라는 아이디어였다. 한 편 영화감독이자 둘째 아들인 명규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른 채로, 형의 이 프로젝트를 듣고 동참하기로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하는 효자였던 것이다. 어쨌든 간에 두 아들은 이 일을 아버지 생애 마지막 효도 선물로 드리고자 마음을 모았고 작전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은 같은 명목으로 김 노인의 손녀를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논의되었고 암묵적으로 김 가정은 '통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 <간 큰 가족> 가족구성원

'간 큰 가족' 은 가족이라는 소재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과 작은 청사진을 제시한 영화이다. 각자의 목표에 맞게 통일을 원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이 보이고 있다. 어떤 이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어떤 이는 아버지가 물려 줄 재산을 위해서 통일을 바라고, 어떤 이는 영화제작자로서 자신의 성과와 그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이는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지만 대세에 따르고,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목표와 목적에 맞게 통일을 바란다. 이것은 현재 한국에서 통일을 찬성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의 실상을 빗대어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 어떤 이는 사업적 투자 및 확장을 위해 통일과 교류를 바라고 어떤 이는 순수하게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며 통일을 염원하고 어떤 이는 그저 대세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의견을 던진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영화에서 각 인물들이 과

연 어떠한 식으로 그 그림을 이루어나가게 될까 궁금해졌다. 결국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었다.

▲ 최초의 통일뉴스를 보고 만세를 부르며 병석에서 일어나는 김 노인

각자의 이익을 위해 '통일 만들기' 에 동의한 그들은 통일을 쇼로 연출하게 된다. 그 때부터 그들의 '간 큰' 하루가 시작된다. 먼저 임시 스튜디오를 만들고 배우를 구해서 통일 방송시스템을 연출하고 통일신문을 만들고 급기야는 통일 스포츠에 공연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김 노인에게 실제 통일이 된 것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김 노인의 병세는 거짓말처럼 호전되고 노인은 곳곳에서 들려오는 통일 뉴스로 인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가 이후에 고백하지만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며칠을 보냈다' 는 말과 같이 생전 없던 환한 미소를 짓고 소리 내어 하하하 웃기도 한다. 가족들은 내부에서만 연기하던 쇼를 마을 수준으로 확장하게 되고 일은 점점 커져서 급기야는 김 노인이 보고 싶다는 평양기예단 공연까지 기획, 연출하게 된다. 하지만 배우들의 사고와 경사 난입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은 종료되고 김 노인은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두 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통일 역시 가짜 쇼였음을 깨닫고 말없이 돌아선 순간,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 그는 그토록 그를 기쁘게 했던 삶의 희망이 사라지자, 다시 그는 병석에 눕게 된다.

▲ 통일탁구경기 연기

이후 우여곡절 끝에 쇼가 아닌 진짜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얻게 된 그들은, 드디어 북에 가서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정작 가장 이 순간을 염원했던 아버지는 갑작스런 병세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의 두 아들만이 누나를 만나러 상봉 장소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는 친누나가 아닌 그녀의 사촌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학교 선생님이던 사촌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녀가 동생들을 만나면 준다던 선물을 꺼내어 그들 앞에 내놓는다. 두 형제는 곱게 싼 선물을 조심스레 풀어 보는데, 그 안에는 다름 아닌 공책 여러 권과 가지런히 정리 된 좋은 연필 여러 자루가 들어 있었다. 북의 학생들에게는 귀한 물건일 고급 학용품을 동생들을 위해 준비해 둔 선생님 누나. 그녀는 이렇게 큰 동생들이 있으리라곤 생각 못했을 거란 이야기를 하며 눈가를 닦았다. 선물을 본 동생들 역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낀다. 사촌은 누나의 사진을 건네는데, 그 사진 안에 있는 건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정갈한 여성이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누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처음 본 그들은 그 사진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린다.

이 장면이 비춰질 때 나도 마치 이 가족인 것 마냥 눈시울을 적셨다. 이 가족 뿐 아니라 상봉회장에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각자 테이블의 번호표를 달고 들어오는 자신의 가족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어디 갔다 왔누?' 그러면서 기뻐해야 할 자리에서

쏟아내는 많은 이들의 눈물은, 그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의 슬픔과 헤어진 순간의 꾹 참아왔던 잊지 못할 아픔을 드러내는 것만 같았다.

본인들이 원한 이별도 아닌데. 의지적으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던 한 가족이었는데. 왜 당연한 가족으로서 함께 살 권리를 박탈당해야만 했던 건지. 왜 이러한 큰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던 건지?

▲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버스에 오르는 가족들

타율적인 분단, 강대국의 이권 다툼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쟁의 발판이 되어야 했던 남북의 아픈 역사를 보는 것 같았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아픔의 흔적 38 선. 지금 두 나라를 분단 이후 각자의 길을 가며 많이 달라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존재하고 있는 제3국의 흔적.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그것이 결국은 아무 힘없는 민간인에게 돌아온다. 결국은 가족을 먼 땅에 두고 왔지만 만날 수 없는 현실로 돌아온다. 분단은 분명 지금 누군가에겐 중대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 10 년 후, 20 년 후엔 분단의 아픔을 지닌 구성원들이 그 시대를 구성하고 아픔으로 견디며 통일을 꿈에도 그리고 통일이 이야기되었을 테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그들이 점차 시대의 다음 세대로 뒤쳐지면서, 하나 둘 그들은 사회 밖으로 밀려져갔고, 수많은 이들은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통일의 간절한 바람을 가진 이들은 소수가 되어 갔다.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간 큰 가족' 처럼 집안에서 구전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듣기도 하고 뉴스나 이야기에서 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점차 이산가족은 '남의 이야기' '옛날이야기' 가 되었고 자연스레 통일의 필요성이나 염원도 옅어지게 되었다.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고 통일 시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부담을 느껴 통일을 불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단 상황을 마치 전혀 없는 것처럼,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기에 이르렀다.

통일이나 나라를 지키는 문제는 국방부, 군인들만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고, 현대인은 점차 각자의 삶과 개발에 집중하게 되었다.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어쩌면 오지 않을, 오지 않으면 좋을 일이기도 하다고 한다. 간혹 어떤 젊은이 중 분단세대와 같이 이산가족의 이유나 한 가족, 한 형제임을 제기하며 통일을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빨갱이 혹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지녔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2.

어떤 것이 현실이란 말인가? 셈하기 잘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현대인은 현실을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붇는다. 하지만 정작 국가의 현실, 역사, 미래에 대해 이토록 관심 깊게 사고하고 고뇌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현대인은 얼마나 되는가?

극중 '간 큰 가족' 은 아버지의 꿈인 통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생판 모르던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노력하고, 가상 통일 시나리오를 만들어 통일 후 상황에 대해 연기하고 대비하기도 한다. 어쩌면 정작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군 관계자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아닐까? '간 큰 가족' 이 7 살 어린이부터 장년이 된 아들 내외, 동업자들까지 함께 동원하여 한 마음이 되어 통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통일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적

어도 통일을 생각해야만 한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두 형제와 누나의 사촌의 만남이 이어진 후, 다음 장면은 김 노인이 누워 있는 병실을 비춘다. 그곳에 찾아온 것은 두 아들과 다름 아닌 사촌이었다. 그녀가 김 노인의 딸이 아니라는 소식은 두 아들만 아는 것으로 하고, 김 노인의 평생소원을 이루어 준 것이었다. 그녀가 들어오자 노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킬 힘도 없는 손을 꿈틀댄다. 그 힘겨운 손 위에 딸을 연기하는 그녀는 그저 다가가 손을 잡는다. 김 노인은 그녀를 쳐다보며 말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표정을 짓는다. 그녀가 '아버지' 한 마디를 한다. 그러자 김 노인은 그녀를 보며 오열하듯 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평소에 하던 그 말을 또 반복한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부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딸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딸이든 딸의 사촌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랴? 사실 딸도 북녘에 두고 온 아내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평생소원이던 가족과의 상봉이 이렇게 이뤄졌지 않은가? 김 노인과 손을 맞잡은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며 운다. 마음이 전해진 것이리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뺨에도 눈물은 흘러내렸다.

영화 속에서 이산가족상봉 장면은 모든 장면의 해결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간 가족들이 해왔던 힘겨운 연기,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시작한 이 일의 진정한 해결. 그것은 보고 싶은 가족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자체도 연기이기는 했으나, 그 노인에게 적어도 눈앞에 있는 그녀는 딸이었다. 그것으로 그의 평생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어쩌면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자신의 탓으로 애써 돌리며 자책을 하던 그의 가슴에 짐을 비로소 놓을 수 있던 순간인지도 모른다.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김 노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그는 자신의 탓이라며 자기 잘못이라며 늘 혼잣말을 되풀이해왔다. 힘없는 김 노인에게는 가족들과 떨어진 그 순간처럼, 국가나 이 일의 근본적 원인이 된 다른 나라를 원망할 힘조차 없던 게 아닐까? 그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이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쟁을 국익에 이용한 것은 정부와 군대이지만, 정작 민간인인 국민들은 사상이나 국제정세, 정치 등에 대해 무지한채로 이 무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그것은 남이나 북이나 매한가지이다. 그리고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 생애 가장 큰 소원인 그들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빼앗겨버렸다. 차마 소원일 수 없는 것이 소원이 된 채, 어떤 이는 가슴에 한이 된 채 '나에게 통일은 정말 큰 의미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라고 말한 김 노인의 표현처럼 그것을 염원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가정이다. 그 근본이 되는 가족이 떨어진 채로 그냥 지낸다는 것은 지금은 두 나라가 된 양쪽에게 모두 분명한 한계적 요소가 될 것이다. 김 노인과 같은 이산가족의 당사자는 점차 사라질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 흘러온 민족정체성은 모든 이산가족이 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3.

모든 미래는 역사로부터 나온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명확한 현실이 있다. 바로 분단이고 휴전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 보면 더 분명히 직시할 수 있다. 이 분단의 현실은 우리 민족의 필요나 자체적 동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과 중국의 큰 세력다툼 속에 강제로 이루어진 폭력적 협약인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남북전쟁을 일컬어 '항미원조전쟁' 이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관을 만들고 역사에서 자국 승리의 전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들에게 남북전쟁이란 미국을 대항하고 조선을 도운 중국 승리의 역사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쟁의 이야기 속에 정작 당사자인 조선이나 한국의 이야기는 없다. 이것이 역사에서 미뤄 볼 수 있는 현실이다.

타국에 의해 시작된 전쟁과 휴전, 이제 이 주인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 대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우리는 전쟁 후 분단 그 당시 국가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수많은 국민을 잃었고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분단되었고 영토는 두 동강났다. 이제 그 아픔으로부터 오는 분단국가로의 정체성을 씻어야 하지 않을까? 그 노력은 우리 스스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3국,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는 사회로부터 무심하게 통일을 치부해왔고 너무 쉽게 현재 분단 상황에 안주해버리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 두 나라가 합쳐졌을 때 오는 수많은 사회문제, 경제적 부담, 정치적 혼란, 복지 문제 등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 진정한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할 일이다.

통일이라는 것이 이 영화 속에서처럼 쉽게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 다른 나라가 주장하고 정의하는 통일이 아닌 우리 민족의 통일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될 통일이 어떤 모습인지를.

수상소감

이번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제 1회 영화비평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제목만 들어보았던 <간큰 가족> 이라는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다. 보는 내내 웃었고 눈물 흘렸던 이 영화 속에서 나는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막연했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작업은 중국어학과 전공이면서 북한학과 사회복지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나에게 뜻깊은 작업이 되었다. 나는 4년 반의 해군생활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제대 후 제2전공으로 북한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에서 1년간 유학했는데 그 때에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경험해보게 되었고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유학생활동안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그 후에 사회복지학과를 또 다른 전공으로 공부했다. 이는 북한과 중국을 공부하는 내가 실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요소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제 어느덧 4 학년, 대학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영화비평 응모는 그간의 경험 및 견해를 영화를 통해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또다시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비평 부문 수상작 2

영화 <굿바이 레닌>비평 : 분단의 트라우마와 사람의 통일

이장호(건국대학교 법학과)

1.

<굿바이 레닌>.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영화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영화의 배경은 통일 직전의 독일, 사회주의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의 독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이 영화가 이념의 문제를 다루거나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승리한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한 영화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굿바이 레닌>은 그런 류의 영화가 아니다. 그런 류의 영화였다면 아마 제목은 '굿바이 레닌 헬로우 아메리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저 재미있는 코미디 가족영화도 아니다. 한 가족을 통해 분단에서 오는 개인의 상처, 트라우마와 통일 이후에 오는 여러 갈등을 위트 있게 다룬 영화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다. 독일이 서독, 동독으로 나뉘어 있던 시절,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은 서독으로 망명을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 딸과 동독에 남았다. 남편과 헤어진 충격으로 어머니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퇴원 후 어머니는 열렬한 사회주의 운동가가 된다. 어머니의 활동은 너무나 이상적이여서 학교에서 쫓겨나고 당에서 인정하여 표창까지 수여할 정도이다. 그런 어머니는 아들이 베를린 장벽 제거를 위한 시위에 참가한 죄로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심장마비로 혼수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독일은 통일이 된다. 어머니는 그 후 깨어나지만 더 이상 충격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사에 말에 따라 아들은 통일이 된 독일의 모습을 숨긴 채 어머니에게 자신이 조작한 사회주의의 모습만을 보여준다. 집 안을 다 예전으로 돌려놓고 '스프리발 피클'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조작된 텔레비전 프로그램만을 보여준다.

영화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사람이 어떤 것에 미치게 몰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대체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 어떤 것이 미치게 좋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이다. <굿바이 레닌>에서 어머니는 과연 어느 쪽이었을까. 영화 초반에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열렬한 사회주의자이다. 임산복의 개선안을 제출하고 꼬마 합창단을 지휘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언뜻 보면 사회주의가 좋아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존재한다. 서독으로 망명하는 남편을 따라가지 못 한 자신, 자식들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동독에 남는다는 선택을 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말이다. 이 모든 감정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이념 속에 자신을 파묻었다. 자신이 이 동독에 남은 것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 심한 우울증을 겪을 정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망각의 장치로 말이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어머니의 아픔을 잊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가족끼리 별장을 가는 장면에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러한 내면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인다.

영화를 보다보면 아들인 알렉스의 효심어린 조작에 소소한 웃음이 나올 때가 많다. 딸인 아리안이 알렉스가 만든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웃음이 터지는 것을 참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나도 어머니를 속이기 위한 알렉스의 조작의 공범자가 된 것처럼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직장동료와 TV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인들을 다 동원하여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 모든 걸 알고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어설퍼 보인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온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렉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어머니는 정말로 사회주의가 무너진 독일을 보면 충격을 받으셨을까? 아닐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 깊숙이는 남편을 보고 싶어 했다. 통일된 조국, 즉 무너진 사회주의를 보고 충격을 받기보다는 남편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 가졌을 것이다. 어머니가 별장에서 모든 걸 아이들에게 고백한 후 한 독백을 다시 한 번 들어보자.

'사랑하는 로버트.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서독으로 망명하지 않은 건 자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가 어떠한 선택을 했었더라도 후회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사실상 어머니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없었다. 분단된 독일에서 자신이 선택하긴 했지만 그 선택지에서 어떠한 것도 이별을 동반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서독을 택하면 자식과의 이별, 동독을 택하면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준 것은 이념으로 분단된 독일이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분단된 조국이 개인에게 주는 상처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의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상처 받고 후회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최인훈 선생님의 소설 <광장>에서 이명준이 남과 북 어디도 선택하지 못 하고 중립국을 택했던 것처럼의 제3의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이명준의 이러한 선택도 결국은 자살로 이어진다. 이는 어떠한 제3의 대안도 분단된 현실이 개인에게 줄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단의 현실이 개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은 너무도 필연적이다.

이러한 분단의 상처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알렉스와 아리안도 가지고 있다. 너무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의 이별, 그것도 서독 여자와 바람이 나서 넘어갔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컸을 것이다. 그리고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아 먼 곳만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봐야하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의 상처는 통일이 되고, 어른이 되었다고 아물 수 있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었다. 통일이 되어 버거킹을 찾은 아버지에게 아리안은 "버거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너무나도 상투적인 말만을 한다. 십여 년 만에 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알렉스 또한 아버지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했다. 분단의 현실이 빚어낸 가족 간의 슬픈 오해와 증오심이 마음속에 자리해 있다.

또한 알렉스는 어머니에게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여러 사람과 갈등을 빚는다. 여자 친구인 라라와의 갈등, 매형과의 사소한 말다툼 등 계속 주변 사람들과 부딪힌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건 알렉스의 누나인 아리안과의 갈등이다. 알렉스는 아리안과의 대화들 대부분이 감정적인 대립으로 치닫는다. 아리안은 동생이 하자는 데로 끌려가지만 늘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똑같으나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서로를 이해를 하지 못 한다. 가족 간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

2.

분단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특히 남북이 내전을 겪은 우리나라는 그 상처가 매우 크다. 이 영화의 독일의 동서관계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분단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관계였다. 그것은 분단의 이유가 동서독의 국내의 사정보다 어쩔 수 없이 패전국으로서 승전국들에 의하여 동서로 나눠진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은 독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더 심각하다. 분단의 이유가 복합적인데다가 6.25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 서로에게 증오가 가득한 적대심만을 남겼

고 그 적대감은 개인에게 더욱더 깊은 절망감만을 남겼다. 그리고 그 적대심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뎌지지 않고 계속 우리들 가슴 속에 남아 개인의 상처를 적대심에 가리게 만들었다.

나의 할아버지도 이산가족이다. 북쪽에서 살고 계시다가 6.25전쟁 중에 처와 4남매를 두고 월남을 하셨다. 그리고 남쪽에서 할머니와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꾸리셨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많으신 분이었다. 명절 때마다 찾아가면 늘 나를 붙잡고 북쪽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그리고 이산가족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본인도 신청했다면서 북녘에 있는 가족들을 보고 싶다고 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어린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영화 속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지만 나의 할아버지는 그렇게 갈망하던 북쪽 가족과의 만남을 결국 이루지 못 하고 돌아가셨다.

분단이 된지 올해로써 67년째이다. 지금도 남과 북에는 분단된 현실 때문에 서로를 만나지도 못 한 채, 상처를 그대로 가슴 속에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은 나의 할아버지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역사 뒤편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산가족 이야기는 머나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산가족에 대한 감정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뎌져만 간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이산가족의 이야기는 고루한 담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분단의 상처와 아픔은 분단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현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자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유년시절에 반공교육을 받고 자라 비뚤어진 대북관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의 상상 속에는 북한 군인들은 머리에 뿔이 달리고 김일성은 악의 화신이었다. 대한민국 남자의 경우는 군대로 징집되어 정신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증오심을 키운다. 우리나라 국민들 머리 속에는 늘 '적'이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예전에 신학자 현경 선생님의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 출판 기념회를 간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현경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적'이라는 개념 하에 이해해서입니다. 미국과 이슬람 간의 갈등도 그렇고 현재 북한과의 관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적'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다. 갈등의 원인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의 씨앗은 분단세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인 우리들 모두 가지고 있다. 분단의 현실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적'이라는 갈등의 씨앗을 심었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보면 대부분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 서로 '빨갱이', '수구꼴통' 등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한다. 이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뒤돌아 생각하면 분단이 그 배경이다. 분단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여전히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

통일 이후의 모습도 이 영화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어머니의 예전 동료나 이웃들은 모두 통일된 독일에서 생기를 잃었다. 이웃 할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었고 교감 선생님은 은퇴해서 술로 찌든 생활을 한다. 또한 동독에서 존경받던 우주인이었던 얀은 통일 후 평범한 택시운전사로 전락하였다. 이들은 오히려 알렉스의 조작된 사회에서 생기를 되찾은 느낌이다. 어머니의 비판을 대필해주던 이웃의 아주머니는 통일된 상황을 알면서도 통일 이전의 모습, 정확히는 통일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통일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말해준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통일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당연하다. 애초에 통일 후 트라우마의 근본원인은 분단이 아니라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된다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통일은 듣기에는 아무 단점 없이 그저 좋아만 보인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처럼 통일이 또 다른 개인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다면 그런 통일이 과연 지금보다 나은

미래의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일로 인해 또 다른 트라우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

<굿바이 레닌>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무겁게 가져가지 않고 다소 코믹하고 유쾌하게 이끌어간다. 그러나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 있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분단된 이 한반도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단의 트라우마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리고 미래의 올바른 통일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 영화를 보니 어쩌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민족적·정치적·경제적 과제로만 바라보고 상처 받은 또는 상처 받을 개인은 철저하게 무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상처 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통일이 되더라도 사람이 상처 받지 않는 그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정확한 답은 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굿바이 레닌>에서는 아주 작은 해답을 내놓고 있다. 마지막에 어머니를 화장하고 그 유해를 하늘로 쏘아올린 장면에서 알렉스의 마지막 대사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마음속에 담고 간 조국은 그녀의 믿음이 실현된 이상향이었다. 세상엔 절대 존재할 리 없지만 어머니와 함께 내 기억 속에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그것이 비록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말이다. 통일도 국민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일 때 제대로 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에 대한 담론이 남과 북, 국가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그 과정 속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이런 국민적 차원의 담론은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통일의 과정 속에 개인은 실종되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통일도 사람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는 통일 이야기는 위에서 말했듯이 결국 또 다른 상처만을 만들 것이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사람 중심'의 통일 이야기의 필요성이다.

비록 영화의 배경은 독일로, 우리와는 다르지만 이 2시간 안 되는 짧은 영화 속에 담긴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다. 분단의 현실 속에 상처 받은 분단 세대와 현재 분단을 겪고 있는 세대 그리고 통일이 되더라도 상처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모습을 담아 낸 이 영화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통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이다.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수상소감

처음으로 영화 비평문을 썼습니다. 부족한 글이라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영화 비평문을 쓰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통일 관련 서적이나 논문을 읽어보고 가끔 관련 수업이나 토론회도 가보았습니다. 대부분 통일 비용이 얼마니, 햇볕정책이 잘 됐니, 잘못됐니, 북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통일을 너무 이념적·정치적·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고 저 또한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분단 상황에서나 통일 이후의 올지도 모르는 개인의 상처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이 긴장상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긴장상태를 위기가

아닌 지금까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개인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통일 정책에 대한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은 결국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닐까요. 통일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이번 공모전으로 저에게 이런 시각을 제공해준 통일인문학연구단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통일인문학연구단의 활동들 하나하나가 저처럼 기존 통일의 인식의 틀에서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화비평 부문 수상작 3

영화 <굿바이 레닌>을 통한 통일의 치유의 서사를 찾아서 : 지젝의 이데올로기론과 데리다의 유령론을 중심으로

최수범(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영화는 주인공 알렉스의 목소리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로부터 시작한다. 비디오 속에서 동독에서 살아가는 단란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던 장면은 어느 순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고,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서독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어증을 겪은 후 “우리는 사회주의 조국과 결혼 했다.” 라는 말을 하며 당에 열성적으로 헌신한다. 알렉스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잊으려는 듯 로켓 만들기에 열중하면서 우주 비행사가 되기를 꿈꾼다.

영화 속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알렉스는 반정부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만난다. 열혈 공산 당원이자 당 간부인 알렉스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기적적으로 알렉스의 어머니는 깨어나지만 의사는 큰 충격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혼수상태에 빠져있던 8개월 사이에 독일은 통일이 되어 버렸고, 베틀린 장벽은 산산 조각나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머니에게 병이 생겼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알렉스는 어머니만을 위해 가상의 베틀린 장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한다. 알렉스는 동독시절에 있던 음식을 구하고, 친구와 합작하여 가짜 동독 시절 뉴스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보여드린다. 알렉스는 어머니가 신뢰하며 마음을 바친 단단한 동독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보여준다. 현실의 동독은 사라졌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자본에 흡수되어 도처에 버거킹과 코카콜라 간판이 들어선다. 알렉스는 이를 커튼으로 가려버리고, 코카콜라는 원래 동독의 자산이라고 어머니에게 설명한다.

알렉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잠시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목격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습은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이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인다.’ 어머니를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동독 시절 물건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이 웃음은 쓴웃음이다. 현실과 다른 가상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속이기 위한 가상을 생성하며 나오는 쓴 웃음. 이 웃음은 거짓의 부산물이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알렉스의 친구가 입은 티셔츠는 영화 매트릭스의 기호 덩어리를 연상 시킨다. 이 티셔츠는 숭고한 너의 목적이 네가 가상을 만드는 것을 정당화 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알렉스의 노력은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짓말이고, 상대방에게 당면한 현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다. 알렉스의 주장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당신은 이 현실을 몰라야 한다. 이 현실을 모르는 것이 당신에게 더 좋은 일이고, 이건 당신을 위한 일이다. 이것은 선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며 모두를 위한 일이다. 나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알렉스의 여자친구와 동생은 계속 어머니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알렉스에게 말한다. 하지만 알렉스는 계속 어머니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망설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한다. 다른 방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알렉스의 행동은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 장치는 남한에게 주적 북한은 끊임없이 환기 시키며 우리의 적이 존재한다고 속삭인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국가가 우리 체제에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의 체제를 무너트리고 끊임없이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을 만들고 있다. 우리의 체제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반공 이데올로기는 건강한 남한의 체제를 위한 일이다. 이 장치가 자유민주주의와 반대 된다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치를 반대하지만 한국정부는 폐지를 망설이며 이 장치의 유지와 작동을 정당화 한다. 이 장치는 자크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체제 바깥은 없다고 주장하는 집단적 주술 행위다. 우리에게 북한이라는 유령은 우리에게 절대 악이며 명백히 제거해야할 주적이라는 광기 어린 저주의 주술 행위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은 절대 제거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령은 제거 되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 유령은 장치의 결속과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유령을 원한다.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은 북한이라는 유령을 사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척 한다. 하지만 오히려 유령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유령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소환사가 모습의 본질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참여자들의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다. 즉 이데올로기의 사회적인 효과와 재생산 자체는 개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 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 자체이다."(슬라보에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p.48)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따른다면 남한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이다. <굿바이 레닌>에서 알렉스는 존재 자체가 허위인 동독을 끊임없이 과거로부터 호출해서 어머니에게 죽어버린 동독의 이념을 재생산 하여 공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보안법은 존재 자체가 허위인 강력한 북한 체제를 끊임없이 호명하고 있다. 이 허위의식 속에서 북한이라는 주적은 그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다. 우리에게는 영화 속에서 어머니를 위해 연극을 하는 알렉스의 모습이 황당하고 재미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 보안법을 목격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알렉스의 행동보다 남한의 모습이 나은 점은 무엇인가. 국제 인권 단체에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폐지를 권고해왔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고 웃으며 즐겼던 연극이 지금 이 땅에서 훨씬 더 거대한 크기로, 훨씬 더 많은 연극배우들이 출연하며, 훨씬 더 황당한 이야기로 현재 진행형으로 상영중에 있다.

영화 속 알렉스의 모습을 계속 따라 가다보면 당황스러운 지점에 맞닿게 된다. 그의 거짓말은 알렉스의 어머니가 알렉스가 하는 거짓말을 깨닫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되기 때문이다. 알렉스는 친구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마지막으로 만든 가짜뉴스를 어머니와 함께 지켜보며 흡족해한다. 하지만 이때 알렉스의 어머니는 이미 동독이 사라지고 통일 독일이 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다. 알렉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의도를 모른척하면서, 아들에게 따듯한 미소를 보내며 연극에 가담한다. 장치는 고장났고, 장치는 이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척 행동하는 연극이 펼쳐진다. 외관은 무너졌지만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외관이 온전한 척 행동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목격 할 수 있다. 남한의 대다수 국민은 연극의 의도를 알면서 연극에 동참하는 어머니의 자리에 위치한다.

지젝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진실을 믿지 않으며, 이데올로기적인 명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근본적으로 사물의 실상과 현실을 은폐하는 도구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현실 자체를 구조화하는 환상의 수준에 있다. 즉 냉소적인 정치적 거리두기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환상이 지니고 있는 구조화에 대해 회피하고, 모른척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데올로기의 구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냉소적인 시선을 구조에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부품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샘이다. 오히려 이 냉소적인 태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 이를 방조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반공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이 힘을 잃고 현실에는 의미가 없는 허위의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냉소주의자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이데올로기에 가담한다. 그런 의미에서 냉소주의자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바를 알고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어쩔 수 없다는 시대를 탓하는 이데올로기적 은폐와 현재 우리는 분단국가 상태라는 덧칠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변명으로 일관한다. 냉소주의자들은 이 구조에서는 그 누구도 무기력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냉소주의자가 아닌 자들에게 반문한다. 현재의 장치 안에서 이 기만적인 연극은 소비되고 있다. 외관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외관 속 망가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우스꽝스럽게 이 연극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를 충실하게 믿고 있고 가담하는 자들은 이 냉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알렉스는 영화가 끝날 때 까지도 어머니가 자신의 연극을 알고서도 모른 척 했다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한다. 알렉스는 “나는 어머니가 끝까지 진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옳았다고 믿는다. 어머니는 행복하게 돌아가셨다.” 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들에게는 이데올로기가 실현 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 또한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믿는 것이 중요치 않다. 그들은 이데올로기로부터 얻는 부산물과 이데올로기의 지속과 결과만을 중시할 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고, 수단은 기만적이다. 그들에게는 이 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 장치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끊임없이 필요 할 뿐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만 하는가?

우리는 작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연극을 펼치는 배우들에게 연극의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영화 속에서 알렉스의 여동생과 알렉스의 여자친구는 계속 어머니를 속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알렉스에게 진실을 말하고 연극의 중단을 요구한다. 그들 또한 어쩔 수 없이 연극에 동참했지만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영화 후반부에 알렉스 어머니에게 현실체제의 실체를 알리는 사람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알렉스의 여자친구다. 알렉스의 여자친구가 현실의 실체를 알려 현실 인식의 병리성을 치료하듯, 우리도 병리적인 현남한 현실을 치료 하기위해 나서야한다. 알렉스는 진실을 알리게 되면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끝임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미루고 피해왔다. 하지만 막상 진실을 알게 된 알렉스의 어머니는 멀쩡했다. 오히려 침착하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지젝이 말하듯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로지르기 위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적인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매개와 전략이 요청 된다. 알렉스의 여자친구가 행동했듯이 우리는 허황된 이데올로기의 외관을 깨부수며 이데올로기의 늪에 빠져있는 자들을 꺼내 와야 한다. 지젝은 '냉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실천'에서 찾는다. 중요한다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라, 한다는 데 있다. 현실의 극복은 아는 곳이 아니라 하는 곳에서 탄생한다. “나는 이 거

짓 된 반공주의와 국가보안법이 행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극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통일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북한이 있다고 떠드는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 이러한 유령의 호출은 남한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남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남한이 해결해야 하는 취약 지점을 숨기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우리의 체제 안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저 거대한 유령을 제거 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유령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 거대한 기만전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끊임없이 강한 북한이라는 유령을 호출 하는 행위는 오히려 현존 남한 체제의 취약함, 허술함을 역으로 증명하는 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영화 후반부에는 알렉스의 아버지가 가족을 배신 한 것이 아닌, 어머니가 동독 탈출을 망설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갈라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계속 편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어머니가 편지를 숨겨 놓았기에 알렉스와 알렉스의 여동생을 이를 알수 없었다. 알렉스의 어머니는 현실조건에 안주하고 열혈한 공산당원이 되어서 이데올로기에 더욱 안주하게 된다. 후에 알렉스는 아버지의 편지를 찾아 그 진심을 확인하고 서독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다. 우리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상대방이 보냈지만 우리는 받지 못한’ 편지를 찾아 내야한다. 거짓 된 이데올로기 장치에 벗어난 자들이 보내는 연대의 신호와 의지를 찾아 낼 때 지금의 병리적인 서사가 치유의 서사로 전환 될 것이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는 죽은 알렉스의 어머니를 유골을 작은 로켓에 태워 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알렉스를 아는 주변 지인들이 모두 모여서 이를 지켜본다. 우리는 알렉스가 어머니의 유골을 로켓에 태워 보내듯, 통일의 서사를 가로막는 냉소적인 이데올로기를 태워 멀리 보내버릴 필요가 있다. 모두가 함께 이 행위를 지켜봐야 한다. 분단을 치유하는 서사는 현실을 기만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말로부터 해방 될 때 비로소 시작 된다.

알렉스가 조작한 뉴스에서 국가위원회 의장을 맡게 된 전직 우주비행사 ‘지그문트 옌’의 연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의 서사를 생각 할 수 있는지, 상상의 방향을 제시 해준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천 수명의 사람들이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수천 수명의 사람들이 작년에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적으로 간주했던,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끊임없이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표들을 눈에서 놓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을 차렸지요. 사회주의, 그것은 스스로를 방벽으로 가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뜻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위해 동독의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심 했습니다.”

통일로 향하는 서사는 멀리 있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며 망설이지 않고 구성원이 허위적 장애물을 치우는 것에 집단적으로 나서게 될 때 통일의 서사가 열리게 된다. 적대 의식을 버리고 지그문트 옌이 말하는 사회주의의 개방방식 혹은 남한식의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개방방식이건 병리적 적대 현상을 뛰

어 넘는 순간 통일을 향한 가능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화속에서 알렉스가 지그문트 옌에게 저 위는 어땠냐고 묻는 장면이 있다. 지그문트 옌은 “저 위는 정말 멋졌지. 단지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라고 맞장구를 쳐준다. 저 우주 위에서도 하나 된 독일처럼 하나 된 한반도도 멋져 보일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볼 수 있길 기대한다.

수상소감

몇 년 전, 나는 군 복무 대신 대한적십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했었다. 나의 업무중 하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신청에 관련한 행정보조 업무였다. 나는 하루에도 수 십 차례 이산가족 상봉 신청에 관한 상담을 했다. 상봉 신청을 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세월이 묻어나는 쇠약한 목소리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을 지금이라도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그 간절함과는 무관하게도 신청자중 소수만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이번 상봉이 끝나고 나서는 언제 다시 기회가 있을지 기약 없는 현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다.

몇 일 후 웹서핑을 하던 중에 적십자사에서 북한에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를 클릭하여 읽어보고 아래 댓글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대북지원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중에는 적십자사는 빨갱이고 종북단체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도 보였다.

두 상황을 겪고 나서 심적으로 강한 무기력함을 느꼈다. 소통을 원하는 쪽은 거부당하고, 소통을 거부하는 쪽은 상대에게 적의만 보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시선이 마주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이를 극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고민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고민을 글로 녹여낸 것이 이 비평글이다. 부족함이 많은 글을 선정해주신 통일인문학연구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를 계기삼아 앞으로 더 치열한 고민을 하며, 치열한 글을 쓰도록 노력 할 것이다.

통일영화제 영상부문

영상부문 심사평

영상부문 최우수작

<낯선 우리>

당선자 : 김정아

영상부문 우수작 1

<새날교육봉사단>

당선자 : 조형래

영상부문 우수작 2

<DREAM>

당선자 : 박희은, 박소라, 이나라

통일영화제 영상부문 심사평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주최한 통일영화제 영상부분에 응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영상부분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한 결과 <낯선 우리>를 최우수상 당선작으로, <새날교육봉사단>과 <DREAM>를 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주제적합성, 작품구성의 짜임새, 창의성, 사회적 기여도를 영상부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낯선 우리>는 아마추어적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탈북자에 대한 시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남의 주민과 북에서 온 주민 모두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작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상 수상작인 <DREAM>은 남북 대학생들의 통합 노력이라는 '꿈'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과정을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여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짜임새가 약하고 작품의 후반부에 갈수록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최우수상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우수상 수상작인 <새날교육봉사단>은 탈북자 멘토링 과정을 집중 조망한 작품으로서 주제에 충실했다는 점과 뛰어난 영상기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멘토링 과정을 따라갈 뿐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하는 스토리텔링과 창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통일영화제 영상부분 수상작은 모두 스토리텔링과 짜임새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대학생다운 발랄함과 아이디어, 통일문제에 대한 순수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 그것이 사회와 만나는 지점에서 울림이 커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더욱 성숙시켜 울림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통일영화제를 만나러 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통일영화제 영상부문 심사위원단

영상부문 최우수작

<낯선 우리>

김정아(건국대학교 국문과)

1. 기획의도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을 위한 준비에는 금전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미래에 있을 통일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젊은 세대들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통일은 그리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모두가 바라던 통일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지금의 통일을 준비하던 사람들 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현재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작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야 진정으로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 속에서 분단의 상처를 그나마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새터민'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 땅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남한사람들의 편견, 무관심'이라고 한다. 새터민들에게 가지는 무관심, 편견들은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며, 이는 통일 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며,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는 흉터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히 박혀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낯선 우리>는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뜻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낯선 우리> 속 새터민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분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며, 통일에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2. 시놉시스

정미는 새터민이라는 사실만 빼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정미는 이상한 꿈을 꾼다. 꿈속에서 낯선 장소에 서 있는 정미,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선글라스를 낀 낯선 사람들. 사람

들에 치여 넘어진 정미에게 한 남자가 따뜻한 미소로 손을 내밀어 준다. 꿈에서 깬 후,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정미는 쓸쓸해진다.

학교에 다녀온 후, 정미는 홀로 외롭게 방에 있다. 가방에서 꺼낸 교과서에는 새터민이라는 이유로 받은 상처가 가득하다. 화장을 해보면 남한 사람들과 비슷해질까 싶어서 서투르게 해보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래도 어색하기만하다. 영미는 속상함에 집 밖으로 나가지만 자신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더 서글퍼진다.

신호를 기다리며 선 신호등 건너편, 낯이 익은 사람이 서있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남자다. 설렘과 희망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영미. 그 남자는 꿈에서와 같이 영미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

수상소감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지금부터 이를 대비해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에는 사회적, 경제적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젊은 세대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사실 통일은 그리 빠른 시간 내에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모두가 바라던 통일이 올 것입니다. 그 때에는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한 의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작은 문제일 수 있으나, 이러한 작은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야 진정으로 분단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에게 현실 속에서 분단의 상처를 그나마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새터민'일 것입니다. 많은 새터민들이 남한 땅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남한사람들의 편견,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새터민들에게 가지는 무관심, 편견들은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며, 이는 통일 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은, 통일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상처이며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 그 상처는 흉터가 되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낯선 우리>는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뜻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낯선 우리> 속 새터민의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나아가 분단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으며, 통일에의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처음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영화를 찍으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습니다. 새터민의 아픔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촬영을 시작하던 처음. 더운 날씨에 같이 고생하던 스텝들과 배우들. 밤을 새워 편집하던 날들. 이 모든 시간들이 모여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수상의 영광을 누구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함께 땀 흘리던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게 힘이 되어주시는 정운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6분의 짧은 영상이지만,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더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부문 우수작 1

<새날교육봉사단>

조형래(건국대학교 히브리중동학과)

1. 기획의도

북한이탈주민이 3만을 육박하는 시대, 그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다가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새터민은 내가 공부하는 대학교에,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심이 없다면 그들을 만나는 것은 평생 한번 두번 있을까 말까한 일일 것입니다. 혹여 대화를 나누는 행운이 주어지더라도, 조선족이겠지라고 그냥 스쳐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변에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은 내 삶은 변화시키고, 작은 관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작은 관심,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 작은 행동을 할때 한반도의 아름다운 통일은 더욱 가까워 질것입니다.

2. 시놉시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새날 교육봉사단'은 북한이탈 청년들이 미래 한반도의 리더로 성장하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작은 단체입니다. 2011년 9월 24일, 서강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12주 동안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남한 대학생은 새터민 학생에게 실질적인 공부를 알려주고 새터민 학생은 남한 대학생에게 북한의 상황과 문화를 알려주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고, 아직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진 못하지만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시간을 내어 영어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외 선생이 되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11월 5일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간 점검이 있었습니다. 신효숙 박사님과 진로 코치 이민규 선생님을 통해 많은 멘토링을 위한 멘토링을 받았고 그동안의 멘토링 프로그램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가 사는 남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새날 교육봉사단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남북한의 청년들이 동반자가 되고 한마음이 되어 통일의 새싹을 키워가는 것 입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수상 소감

멘티 진성이가 제게 처음 차려준 밥상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구수한 된장국에 흰쌀밥, 그리고 김치 종지하나.. 그 다음 주에도 밥상위엔 달랑 그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냐”는 말 대신 “김치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돌려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성이는, 흰쌀밥을 부지런히 입으로 가져가며 북한엔 ‘반년’ 식량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4월 미나리가 날 때까지 반찬은 그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그릇을 먹을 동안 두 그릇을 뚝딱 비우는 진성이에게 왜 그렇게 빨리 먹냐고 용기 내어 물어보니, 북한에 살 땐 음식을 잘 보지 못해 먹는 것만 보면 빨리 먹는 습관이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을 먹으며 가슴이 먹먹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성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해 시작한 봉사였는데 도리어 내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영상부문 우수작 2

<DREAM>

박희은, 박소라, 이나라(대전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1. 기획의도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3.8선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금강산으로 MT를 가진 않을까?”
이렇듯 대학생의 시선으로 통일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불어 통일에 관한 의식에 한 발짝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작해 보았다. 또한 꿈과 현실의 대비를 통해 남과 북의 현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무관심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통일의 염원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시놉시스

통일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휴전선 주변에서 끝나는 국토대장정이 아닌, 그곳을 넘어서 압록강까지 가게 되는 긴 여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MT도 가게 될 것이고, 스마트폰으로 북한 친구와 그날의 식사 메뉴를 상의할 것이다. 또한 이 씨와 리 씨가 함께 공존하는, 모두들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고 남과 북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최근의 미사일 발포 등 현재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민족인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와 나와 ‘우리…’ 함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와 내가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현실과 꿈의 극명한 차이가 참으로 안타깝다. 그 안타까운 마음과 진심으로 통일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영상에 담아보았다.

수상 소감

평소 통일에 대해 그저 언젠가는 실현될 막연한 꿈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겠지. 하면 하는거지 뭐. 하는 식의 생각을 했다. 통일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북한을 도와줘야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보다 못한(경제건 정치건 뭐든)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0대, 즉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이란 걸 UC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점점 강해진 생각이 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통해 그것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포격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북한 전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몇몇 사람들 때문에 북한에 사는 사람 전부를 나쁘게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과 북을 이분법적으로 다르게 구분 짓지 말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두머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우리는 결국 갈라서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함께 하리란 사실을 믿는다.